



친애하는 ESCO人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한해가 밝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ESCO사업의 무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협회장으로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

가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니즈(Needs)를 부담감으로 느끼지 말고, ESCO사업을 영위하는 선도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의무와 책임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은 그 에너지절약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칠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ESCO사업은 정부의 여러 에너지이용합리화 예산 목록 중에서 유일하게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인 관심사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S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효율성이 그 어느 사업보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실제 ESCO사업을 진행한 에너지사용자 입장에서 ESCO사업은 매우 유익했으며 에너지절감을 통한 원가절감에 확실히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CO를 둘러싼 우호적인 환경조성에 힘입어 올 한해 우리 ESCO사업은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ESCO가족 여러분들이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우리 ESCO들만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친화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SRI투자 등이 걸음마 단계에 속하는 편입니다. 에너지절약기업 특히 ESCO는 역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높고 선별적 투자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절감에 의한 지구온난화대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건전한 에너지절약펀드'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ESCO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ESCO관련 민간 자금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올해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2회 아시아ESCO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무척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ESCO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은 국내에서의 각종 성과를 보건대 이미 닦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ESCO가 왕성한 활동으로 수출산업화하여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한 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미력하나마 ESCO협회는 이러한 ESCO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회장 유제인